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인도불교)

## 1만 불자들이 108 참회로 “지키겠습니다” 서원



◁천성산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호소하는 불자들.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지율스님의 천막 단식 농성 현장에서 1만여 불자들이 모여 자연환경 수호를 발원했다.



◁부산시청에서 서면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생명사랑'을 서원하는 불자들.

### 3·14 부산 '자연환경보전...범불교도 정진대회'

“26층의 높다란 건물 앞 초라한 천막 속에서 한철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동네 어귀의 시냇가에서 장어를 잡으러 발목을 적시는 아이였고, 하늘 높이 나는 나비였으며, 부드러운 땅 속을 기어다니는 땅강아지였습니다. 이 곳에 있는 동안 저는 꿈과 추억으로만 다가오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소음을 견뎌냈습니다.” -단식을 풀며, 지율-

14일 오후 2시, 지율스님이 38일 동안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왔던 초라한 천막 앞에 1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해방지 수호를 위한 불교도 대회에 나온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으며 연단에 올랐다. 부산, 서울, 대전, 경남 등지에서 참여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 그 동안 꾸준히 지율스님의 뜻을 지지하며 동참해온 분도수녀회, 예수성심선교수녀회

의 과제는 이 시대를 사는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본 행사가 끝난 후, 지율스님 단식 정진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 수호자로 나서겠다고 발원한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며 도도한 물결을 이루었다. 부산시청에서 서면까지 이어진 그 물결은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팔뚝과 꽃잎의 말을 대신 전했다. 고산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은

### “정진의 뜻 이어받자” 모두에게 ‘환경’ 화두 ‘자연·사람은 하나 ‘동체대비사상’ 큰울림

수녀들, 율회동 신부 등 참여 대중들은 아열 대로 아린 지율스님의 모습에서 피해자인 우리 국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눈시울을 적셨다. 스스로 곡기를 끊고, 말없는 산의 절규를 대신 전하려 했던 스님의 단식은, 개발 논리로 환경을 파괴한 우리 모두의 잘못을 참회하고 천성산과 금정산의 슬픈 생명들을 구하고자 시작됐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단식을 풀었다. 그러나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촉발된 환경문제는 불교도뿐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모든 국민들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부각되었고, 부산 시청 앞에 모여든 1만여 사부대중의 마음에 절대절명의 화두 하나를 던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율스님의 단식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 마음에 전하기 위한 기도였기에, 단식을 회향한 이후

차가운 땅에 엎드려 말없이 사라져간 일체 생명들에 참회하는 108배를 울리며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생명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다. 지율스님 홀로 외롭게 시작한 단식이 1만 명의 108배 참회로 이어졌듯 14일 정진대회는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부처님 사상을 일깨우는 큰 울림으로 회향했다. 목숨 걸고 산을 지켜온 천 육 백년 한국불교의 숭고한 전통을 재확인하고 한국불교의 결집력과 역량을 모아 자연환경 수호라는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불교도들의 염원을 담은 정진대회가 열린 이날,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을 회향했고, 불자들의 마음에는 ‘환경’이라는 화두가 남겨졌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jgo@buddhapia.com

### ‘지율스님의 단식 38일’

산이 아프면 우리도 2월5~14일(단식 1~10일)



“도와 달라”고 애원하는 천성산을 대신해 기도의 마음으로 단식에 돌입. ‘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는 주제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50여 점 함께 전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율회동 신부 철야 단식 동참. 시청 광장에서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

통 백지화를 위한 미사 집도. 율회동 신부의 동참으로 종교를 초월한 생명 사랑의 기도 정진으로 확산. 지율스님 단식 6일째, 108배 도중 쓰러져 한때 긴장. 내원사 대중 환경 기도 법회. 울산 관음암 대탈스님 환경 사랑 마라톤.

즐겁게, 축제처럼 15~27일(단식 11~23일)

“환경운동은 투쟁이 아닌 축제고, 공감이어야 한다”는 지율스님의 뜻에 따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콘서트’ 개최. 천성산 생태 기행을 다녀온 부산청년봉사단원과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회원들이 준비한 음악회에 분도수녀회, 예수성심선교수녀회의 수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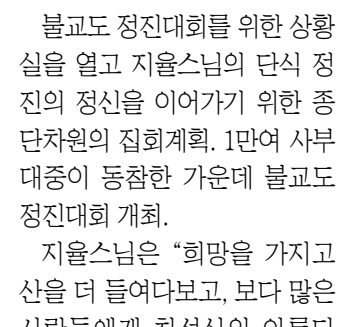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타스님, 범장스님(당시 총무원장 후보) 방문으로 종단 현안으로 부각. 통도사 소임자 스님 릴레이 단식 시작. 시민사회단체 철야 농성 및 교사 1000인 선언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출범 시위. 내원정사 정연스님, 범어사 정관스님, 분도수녀원 원장 수녀 방문 등 지역 종교인들의 지지 이어지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

함께한 마음이 에너지 28~3월9일(단식 24~33일)



원로스님들이 교시를 내려 종단차원의 대응을 지시했고 총무원장 범장스님은 친서를 전달하고 종단차원의 대응을 약속. 환경과 상식회복을 위한 ‘산사산수시수’ 2배수 예찰 수행으로 매일 오후 8시 저녁 예불에 지역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 지율스님은 “천명의 마음이 함께 모여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하면 회향할 수 있다”고 기뻐함. 노무현 대통령 공사중지 및 재검토 지시로 문재인 민정수석 방문. 2배수 예찰수행 회향 음악회로 환경보살 서원 확산.

또 다른 시작, 회향 3월10~14일(단식 34~38일)



불교도 정진대회를 위한 상황실을 열고 지율스님의 단식 정진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종단차원의 집회계획.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도 정진대회 개최. 지율스님은 “희망을 가지고 산을 더 들여다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천성산으로 돌아갔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을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53-652-3300